

제2464호

2024.03.1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1> 아토스 성산 북동쪽, 해발 200m 경사면에 자리 잡은 카리칼루 수도원(사진)은 10세기 말이나 11세기 초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을 갖춘 정교한 탑은 성산에서 아름다운 탑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성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이름으로 봉헌되었으며, 7개의 성당이 있다. 도서관에는 279권의 필사본과 약 2,500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용서 주일(사순절 전 주일) 성 알렉시오스 수도자

(제8조 • 조과 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	----	-----	-------	----

- ◆ 수도자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전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로마 13,11~14,4 (봉)441
- 복음경 : 마태오 6,14~21 … 13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믿음과 불신앙

어 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실까요, 아니면 나자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으로 인해 놀라실까요? 우리의 믿음 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불신앙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마르코 9,24)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던진 이 모순적인 주장, 이 역설적인 외침이야말로, 나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외침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왜 믿을까요? 우리 각자는 믿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에게로 이끄는 길들은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잊혀진 미덕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 나가는 잊혀진 미덕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 많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일과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필요조차 못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미덕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는 대인 관계 속에 자리합니다.

감사는 '나'와 '너' 사이에 있습니다. 즉, 감사는 얼굴을 마주 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그자리를 차지합니다. 한 사람은 무언가를 필요로하고, 다른 사람은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영혼 없는 기계들이 잘 작동하여 우리 일에도움을 준다고 해서 기계들에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자유롭게 행해진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의무적이나 강제적으로 행해진 어떤 일에 대해 감사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법이나 합의, 계약 등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고맙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

나, 이는 예의상의 표현일 뿐,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진정한 감정은 아닙니다.

3.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은, 그것을 받는 사람(수 예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행한다면, 감사는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자리에는 증오나 혐오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4. 감사는 마음의 친절과 정신적 건강의 표시 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준 은인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 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가족"(에페소 2,19) 안에서만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또 "많은 형 제 중에서 맏아들"(로마 8,29)이시며 우리 모두 의 첫 번째이자 위대한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형제들로서, 감사의 미덕을 기를 수 있고 정 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홀로코스트 (4)

존 브래디와 소수의 무명인들 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새로 시성된 성 가브릴리아 수녀의 놀라운 삶에 대한 기록

기 브릴리아 수녀의 삶은 기도와 봉사, 묵상과 행동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흔히 저지르는 어리석고 무의미한 구별과 대조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와 사회,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이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헌신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사회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때에는 한적하고 고립된 정적(靜寂)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같기에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녀를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인들 없이 우리를, 옛날부터 바로 오늘날까지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적은 단어로는 성녀의 영혼이 지녔던 사랑과 그 명료함을 거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저 이 세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녀가 자아냈던 감탄과 경이로운

점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침묵과 신비 속에 싸여있었습니다.

성녀는 결코 세상적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삶 속에서 자신에 관한 어떤 것도 출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말년에 가서야 영적인 자녀들이 사진을 찍는 것 정도를 허락하였습니다. 성녀를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녀를 '예론디사'(보통 나이 많은 수도사나 남자 수도원장을 '예론다'라고 하며, '예론디사'는 이 말의 여성형)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녀 자신은 스스로를 다른 어떤 호칭대신에 그저 가브릴리아 수녀라고 불렀습니다.

성녀에 관한 전기 '사랑의 금욕가'에서 가장 가치있는 부분은 가브릴리아 수녀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마지막 으로 성녀의 말씀 한마디를 인용하여 소개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끝을 맺는 것보다도 더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여기에 적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부활의 현장 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3/20)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22)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1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주여, 주께 의탁하오니 우 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로 우리의 죄악을 살 피소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주는 우리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며 또한 우리 모두는 주의 손으로 빚어 진 피조물이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석후대과 기도문' 중에서

소 식

▒ 참회의 만과

오늘 오후에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 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례합시다.

∭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내일(3월 18일, 정결 월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 식과 기도와 예배 참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 비하는 영적 투쟁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정교주일 성상 준비하세요

다음 주일(3월 24일)은 정교 주일로서 성상 행렬이 있습니다. 성상을 각자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합시다.

